

독감백신 접종 사망자 9명... '백신 공포증' 전국 확산

사망 9명 모두 '무료접종 대상자' 질병관리청 "8건 역학조사 진행" 백신-접종 사망 연관성 확인 안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후 사망하는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까지 발생한 사망자는 모두 상온 노출 우려가 제기됐던 무료 독감 백신 접종 대상자다. 정부는 아직 백신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지만 불안감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백신을 무료접종한 뒤 사망한 사람이 현재까지 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오후 독감 백신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정 청장은 "현재까지 사망 사례가 총 9건 보고돼 그중 8건에 대해 역학조사와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진행 중"이라면서 "또 같은 날짜에 같은 의료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독감 백신 접종	사망	사망까지 시간	기저 질환	독감 백신
1 인천 남/17세	14일 12:10	16일 오전 발견	42 시간	○	보령플루V테트라 (A14720007, 13-18세용)
2 전북 여/77세	19일 09:20	20일 07시 발견	22 시간	○	보령플루V테트라 (A14720016, 어르신용)
3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 (Q60220039)
4 대전 남/82세	19일 10:00	20일 14:00	28 시간	×	코박스인플루4가 (PT200801, 어르신용)
5 대구 남/78세	20일 12:00	21일 00:05	12 시간	○	플루플루스테트라 (YFTP20005, 어르신용)
6 제주 남/68세	19일 08:40	21일 01:11	17 시간	○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 (Q60220030, 어르신용)
7 서울 여/53세	17일 12:00	20일 15:00	75 시간	×	SK바이오사이언스플루4가 (Q022028, 비대상용료)
8					SK바이오사이언스플루4가 (Q422002, 어르신용)
9 경기 남/89세	19일 14:40	21일 14:00	51 시간	○	보령플루V테트라 (A16820012, 어르신용)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 안됨

유가족 요청으로 비공개

연암뉴스 자료/ 질병관리청 10월 21일 오후 2시 기준

기관에서 동일 백신의 제조번호로 접종 받은 접종자에 대해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동구에 거주하는 78세 남성은 전날 낮 동네 의원에서 무료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지인들과 점심을 먹던 중 이상 반응이 나타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0시쯤 숨졌다. 이 남성은 파킨슨병과 만성 폐쇄성폐질환, 부정맥 심방세동 등의 기저질환(지병)이 있었다.

같은 날 제주도 거주 68세 남성 역시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제주시 민간 의료기관을 찾아 독감 백신을 무료 접종한 후 다음날 오후 12시경 상태가 나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전일에는 전북 고창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70대 여성이 사망했고, 대전에서도 80대 남성이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

지난 16일에는 인천 소재 의료기관에서 독감백신을 맞은 17세 남자 고등학생이 이틀만에 숨졌다. 이 학생은 평소 알레르기 비염 외에 특이한 지병은 없었다.

이제까지 발생한 사망자는 각기 다른

제조사의 백신을 맞았지만, 모두 무료 접종 대상자라는 점에서 불안감을 키웠다. 특히, 일부 무료접종 백신 물량의 운송 과정에서 상온노출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한국백신 제조한 백신에서는 흰색 입자가 나타나 일부 물량이 폐기된 사건이 발생한 후라 독감 백신에 대한 공포는 더욱 커진 상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무료접종 독감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의 우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엄중하게 이 사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 등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조사나 분석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보다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해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왼쪽)이 20일 이대서울병원 대강당에서 양인철 솔메딕스 대표이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화의료원, 솔메딕스와 업무협약 체결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솔메딕스와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공동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솔메딕스는 의료진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신개념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의료기기 개발 전문 기업이다.

지난 20일 이대서울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에는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부총장 겸 의료원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하은희 이화의료원 연구진흥담당장 등 의료원 관계자들과 양인철 솔메딕스 대표이사, 강호철 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혁신의료기기

기술 개발 및 공동 연구 개발 ▲의료기 기술 아이디어 발굴 ▲학술 교류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유경하 이화의료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기술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강점을 접합해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인철 솔메딕스 대표이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이화의료원과 공동연구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공동 연구를 통해 혁신 의료기기 개발에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김정미 간호부장 복지부장관상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김정미 간호부장(사진)은 20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대한간호협회 제87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 부장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철저한 감염관리 대응으로 원내 및 지역사회에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이번 장관상을 받았다.

김 부장은 "간호사들의 사명 의식과



희생으로 코로나19의 더 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코로나19가 종식 될 때까지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장은 경기도간호사회 부회장과 화성시간호사회 회장을 맡으며 간호사의 역량강화 및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세경 기자

11번가, 빠른정산 도입에 배송도 빨라졌다

빠른정산 2주... 오늘발송 100만개 ↑ 1.1만 판매자에 140억 빠른정산 지급

커머스포털 11번가가 '오늘 발송' 판매자에게 제공한 '11번가 빠른 정산'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11번가는 '빠른 정산'을 시작한 지난 5일 이후 주문 당일 바로 발송하는 '오늘 발송' 상품 수가 100만 개 증가(기존 1300만 현재 1400만) 했다고 밝혔다. 2주 동안 1만 1000명의 판매자에게 140억 원 이상이 '빠른 정산'으로 지급됐고 첫 일주일(10월5~11일) 대비 둘째 주(10월12~18일) 정산 규모가 46% 이상 늘어날 정도로 당일 발송 상품 판매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11번가 '빠른 정산'은 주문 당일 발송



으로 고객에게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준 판매자를 위해 마련한 서비스다. 고객이 상품을 주문 결제한 뒤 2~3일 만에 정산을 받게 돼, 일반정산 대비 7일 정도 앞당겨 정산 받을 수 있다.

당일 발송으로 판매한 금액이 빠르게 정산되니 판매자 입장에서는 더 빠르게 주문물량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발송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11번가에서 오후 3시 이후 주문해도 당일 발송되는 상품 수는 약 540만 개로 '빠른 정산' 도입 전 대비 약 13.5% 증가했다.

주문 후 발송이 빨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게 고객에게 전달되는 속도도 빨라졌다. 11번가에서 주문 후 배송완료까지 7일 이상 걸리는 상품 수는 전체 1% 수준으로 감소했다.

11번가 이상호 사장은 "11번가는 수수료 없이 업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정산을 제공하면서 이를 통한 판매자분들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효과를 경험했다"며, "결국 e커머스가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상생의 플랫폼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11번가 '오늘 발송' 서비스는 오늘 주문하면 주문 당일 바로 발송하는 보다 빠른 쇼핑 서비스다. 최근 일주일 간 주문 당일 발송을 이행한 비율이 99% 이상인 판매자의 상품만 '오늘 발송'으로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KT&G '릴 하이브리드 2.0' 일본 출시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과 협업

KT&G가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과 글로벌 협업을 통해 일본에 권련형 전자담배 '릴 하이브리드 2.0(lil Hybrid 2.0)' 및 전용스틱 '믹스(MIIX)'를 10월 26일 출시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이어 3번째 출시 국가인 일본은 권련형 전자담배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전자담배 시장은 글로벌 제조사들의 치열한 경쟁과 함께 지난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 시장은 '릴 솔리드(lil solid)'가 출시된 러시아·우크라이나와 달리 '릴 하이브리드 2.0' 및 전용스틱 '믹스'가 출시된다. 최초 판매 제품은 '매트블랙(MATTBLACK)', '코발트블루(COBA LT BLUE)', '프리즘하이트(PRISM W



일본에 판매되는 KT&G '릴 하이브리드 2.0' 디바이스 패키지 및 전용스틱 3종 '믹스 레귤러(MIIX REGULAR)', '믹스 아이스(MIIX ICE)', '믹스 믹스(MIIX MIX)'.

/KT&G

HITE)', '메탈릭브론즈(METALLIC BRONZE)' 4가지 색상의 디바이스와 '믹스 레귤러(MIIX REGULAR)', '믹스 아이스(MIIX ICE)', '믹스 믹스(MIIX MIX)' 전용스틱 3종이다. PMI는 이전 출시한 국가들처럼 일본 시장에서도 KT&G 제품 판매를 전담하게 되며, 제품 출시는 후쿠오카 현, 미야기 현 등 2개 지역에서 먼저 선보인다.

/조효정 기자

AGE 20's

허니버터 아몬드 에디션

생활뷰티 기업 애경산업의 화장품 브랜드 AGE 20's(에이지 투웨니스)에서 허니버터 아몬드의 캐릭터를 디자인에 담은 'AGE 20's X HBAF 허니버터 아몬드 에디션(사진)'을 출시한다고 21일 전했다. AGE 20's X HBAF 허니버터 아몬드 에디션은 K-뷰티 팩트의 원조 'AGE 20's 에센스 커버팩트'와 K-아몬드 대표 길림양행 HBAF의 '허니버터 아몬드'가 만나 탄생한 시즌 한정 리미티드 콜라보 에디션이다.

AGE 20's X HBAF 허니버터 아몬드 에디션은 아몬드를 의인화 한 길림양행 HBAF의 주요 캐릭터를 에센스 커버팩트의 케이스 디자인에 담았다.

/원민지 기자 silverbeauty@

